



Analyst 유승우 · 02-3773-9180 · yswbest@sk.com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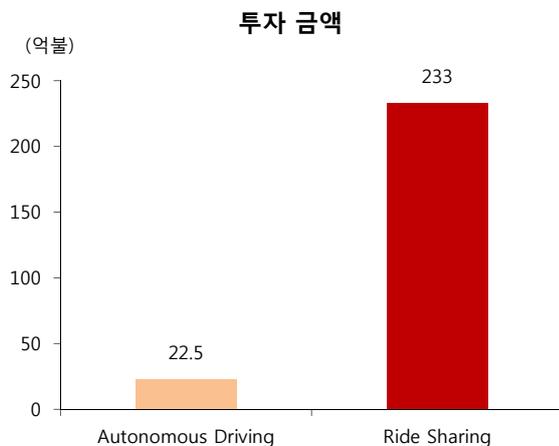
- ✓ 비전펀드는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가 부족함
- ✓ SoftBank가 Toyota, Denso와 Uber 자율주행 부문에 투자
- ✓ 향후 비전펀드의 자율주행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

### SoftBank의 자율주행 추가 투자가 시작되었다

SK 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3월 18일 발간한 'Smart Mobility Climax: 손정의 따라잡기' 보고서를 통해 비전펀드가 향후 모빌리티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.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한 투자가 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 모빌리티 4.0의 키워드인 'ACES'를 구축하는 손정의 회장이 승차공유인 'S'에는 \$233 억이나 투자한 반면 아직 자율주행인 'A'에 대해서는 \$140 억 수준의 가치로 평가 받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GM Cruise Automation에 투자한 \$22.5 억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. 약 10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.

그리고 4월 18일 SoftBank가 Toyota, Denso(Toyota의 부품계열사)와 함께 Uber의 자율주행 개발부문에 \$10억 규모로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. SoftBank가 3분의 1인 \$3.33억을, Toyota와 Denso가 나머지를 투자할 계획이다. 이는 \$72.5억에 달하는 Uber 자율주행 부문 가치의 약 14%에 해당하는 규모다. 이는 SoftBank가 Toyota와 함께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Monet Technologies를 출범한 이래로 Toyota와 함께 투자하는 첫 사례이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.

#### 비전펀드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았던 자율주행



#### 자율주행에 대한 추가 투자에 나선 소프트뱅크

##### 소프트뱅크·토요타, 우버 자율주행 부문에 10억달러 출자 교섭

소프트뱅크그룹과 토요타자동차, 덴소가 미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자율주행 개발부문에 출자하기 위한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(WSJ)을 인용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. 출자액은 3사 합계로 10억달러(약 1조 1000억원)에 이를 전망이다...(중략)...우버는 자율주행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부문을 따로 분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자율주행 개발부문의 가치는 7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외부자본 유입 후에도 우버가 과반의 지분을 계속 가질 것으로 보인다 (후략)

자료 : 산업자료, SK 증권

자료 : 뉴스핌 (2019-04-18), SK 증권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-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